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의 말주고받기 특성 비교 연구

최유미* · 전병운**
(*북한산초등학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최유미·전병운.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의 말주고받기 특성 비교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3, 제8권, 제3호, 82-96.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지체아동의 말주고받기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 2어문이상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언어연령이 3세-4세인 정신지체 아동 10명과 이들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아동-연구자간 대화자료를 분석하였다. 말주고받기는 발화의 시도와 반응, 발화 정정과 정정요구, 방해/중복, 인접쌍의 사용 비율을 알아보고, 두 집단간 그 사용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도'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적절한 시도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적절한 시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반응'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적절한 반응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부적절한 반응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발화정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정요구'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적절한 정정요구와 부적절한 정정요구에서도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셋째, '방해/중복'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문장초 방해/중복과 문장내 방해/중복도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넷째, '인접쌍'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적절한 인접쌍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부적절한 인접쌍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핵심어: 말주고받기

I. 서 론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언어능력으로 다른 어느 동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인간고유의 능력이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이러한 언어능력 또는 문법적 능력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황에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화용적 능력도 습득한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능력은 물론 화용적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에는 언어능력에 말하기 규칙이 부가된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화용 능력 중에서 상대방과 성공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직업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인간관계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술로, 화용론적 측면의 언어 습득이 지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가정생

활은 물론 직업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된다(전병운, 1994).

Sacks, Schegloff & Jefferson(1974)은 말을 주고받는 것(turn-taking)이 언어학적 그리고 화용적 지식이 포함되는 일련의 규칙을 바탕으로 한 숙련된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말주고받기’는 회화구조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형태로서 모든 회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정한 상황과 관련 없이 나타나는 불변형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회화가 수행되는 실제 상황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Craig & Evans(1989)는 아동-성인간 ‘말주고받기’에서 아동의 발화를 중첩된 말주고받기와 순차적 말주고받기로 구분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말주고받기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전병운(1994)은 말주고받기를 9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정신지체아동의 사회연령, 생활연령, 정신연령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효진·김영태(2001)는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아동-성인간 말차례 주고받기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말차례 주고받기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의 말주고받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성인간 말주고받기나 언어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말주고받기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나(Ervin-Tripp, 1979; Craig & Evans, 1989; Craig & Evans, 1991; 이효진·김영태, 2001)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경도 정신지체인은 일반인에 비해 볼 때, 대화 시 말주고받기 규칙을 지키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Abbeduto & Hesketh, 1997). 그러나 대체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지체되기는 하지만 인지적 사회적인 요구와 관련된 친숙한 맥락 내에서 화행을 이해한다고 한다(Abbeduto & Rosenberg, 1980). 어쨌든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은 개인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의 인지적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McTear & Conti-Ramsden, 1992; 전병운, 1994). 따라서 정신지체아동이 의사소통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연령의 일반아동의 의사소통 특징을 조사해 보면 정신지체아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힐 수 있으며, 어떠한 요인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내용 중 말주고받기의 사용비율을 알아보고 그 결과가 일반아동과 비교해볼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주고받기의 하위영역 중에서 발화의 시도와 반응, 발화 정정과 정정요구, 방해/중복, 인접쌍의 사용 비율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결과는 정신지체아동의 말주고받기 특성을 알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요인이 이들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지 그에 따른 지도방법에 대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시 특수학교 재학중이고 생활연령이 9세에서 12세인 정인지체아동 중에서 최소한 2어문이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며, 언어연령이 3세 10개월에서 4세 10개월 사이인 정인지체아동 10명과 ○○시에 거주하는 유아 중에서 정인지체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0명으로, 총 20명이다. 연구대상의 언어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 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 김영태, 2000)를 실시하였다. PRES 검사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일치하는 정인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을 선정하였다.

정인지체아동의 정인지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성숙도검사(김승국·김옥기, 1995)를 실시한 결과 평균 사회지수가 62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3명은 다운증후군아동이었다. PRES검사 결과 통합언어연령이 3세 10개월에서 4세 10개월 사이이며,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장애와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일반아동은 정인지체아동과 언어연령이 동일한 정상아동 즉, 동일언어연령 집단으로 부모와 주양육자에 의해 '정상'이라고 보고되었으며, PRES검사 결과 통합언어연령이 3세 10개월에서 4세 10개월 사이로 자신의 생활연령의 정상범위에 속하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정인지체아동의 평균언어연령은 4세 2개월, 일반아동은 4세 3개월로 *t*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남자 6명, 여자 4명으로 남녀비율을 동일하게 일치시켰다.

2. 자료 분석 기준

본 연구에 사용된 말주고받기의 하위영역은 Prutting & Kirchner(1987)가 개발한 화용조사서(Pragmatic Protocol)를 전병운(1994)이 수정하여 사용한 분류를 기초로 하였다.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인지체아동과 일반아동에게 동일한 대화상황을 제시하여, 이들의 아동-연구자간 대화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화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말주고

받기의 하위영역 중에서 시도와 반응, 발화 정정·정정요구, 방해/중복, 인접쌍의 사용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하위영역별로 적절한 발화와 부적절한 발화로 나누어 그 비율을 비교하였는데, 적절한 발화란 대화 상대방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부적절한 발화는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위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도와 반응

시도와 반응은 말주고받기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시도가 있어야 되며, 이 발화에 대해 반응을 해야 한다.

적절한 시도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상황에 맞게 발화를 적절히 시도하는 것이며, 부적절한 시도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지는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발화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적절한 반응이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적절히 반응을 하는 것이며, 부적절한 반응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하여 반응은 하지만 발화상황에 적절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화정정과 정정요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화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 상대방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말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발화내용을 듣지 못하였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발화정정이란 자신의 발화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었을 때 자신의 발화를 정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이며, 부적절한 발화정정은 자신의 발화를 정정하기는 하나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절한 정정요구는 상대의 발화가 이해되지 않을 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며, 부적절한 정정요구는 상대방의 발화가 이해되지 않을 때, 설명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대화 상황에 적절하지 않게 요구하거나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방해 및 중복

대화를 할 때 화자와 청자간의 말이 중복되어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아 말주고받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청자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대화 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말을 참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게 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여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대화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방해/중복된 말주고받기는 중첩위치에 따라 문장초 방해/중복과 문장내 방해/중복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Craig & Gallagher, 1982). 문장초 방해/중복이란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말을 시작해 발화처음부터 중복이 되는 것이며, 문장내 방해/중복이란 화자가 몇 마디를 말을 시작한 이후에 청자가 말을 시작해 발화중간에서 중복이 되는 것이다.

라. 인접쌍

인접성은 상대방의 발화 후에 이어서 나타나는 발화 즉, 인접쌍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응답으로 나타난 발화가 대화 상황에 적절해야 한다.

적절한 인접쌍은 발화 내용이 선행발화 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선행발화 내용에 정보를 추가하는 발화로, 인사-인사, 질문-대답, 제안-수용 등이 있다(McTear & Conti-Ramsden, 1992). 부적절한 인접쌍은 응답으로 나타난 발화 내용이 선행발화내용과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PRES검사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일치하는 정인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을 선정하였다. 아동과 연구자는 독립된 교실에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아동-연구자간 대화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장난감(소꿉놀이세트, 병원놀이세트 등)을 제시하였으며, 가능하면 연구자가 대화의 화제를 선택해서 이끌어 나가기보다 아동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화 상황 녹화는 아동과 연구자간에 어느 정도 라포형성이 이루어진 뒤에 하였고, 연구자는 아동이 가능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동이 자발적으로 대화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며, 연구자는 가능한 질문을 자제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 가능한 아동의 자발적인 발화를 끄집어내도록 하였다. 아동의 자연스런 대화상황을 수집하기 위해 2회기에 걸쳐 녹화를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100-200개 정도의 발화를 수집하여 대화 내용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20명의 대화 자료를 수집한 후 2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전사자료는 본 연구자와 아동의 담임교사가 보조연구자로 분석을 하였는데, 두 분석자간의 일치도가 81 %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특히 정신지체아동의 명확하지 않은 조음문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의 의견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래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연구자와 아동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말주고받기의 하위영역인 시도와 반응, 발화 정정과 정정요구, 방해/중복, 인접쌍의 사용 비율을 조사하여 이것을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시도와 반응

가. 시도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이 전체 말주고받기에서 ‘시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시도’를 적절한 시도와 부적절한 시도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두 집단의 ‘시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결과는 <표 - 1>과 같다.

<표 - 1> 시도 비율에 대한 t 검정결과

구 분	정신지체아동		일반아동		t
	M(%)	SD(%)	M(%)	SD(%)	
적절한 시도	14.86	5.64	23.00	10.89	2.10*
부적절한 시도	4.29	4.99	2.29	1.38	1.22
합 계	19.14	7.17	25.29	10.82	1.50

* $p < .05$

정신지체아동은 전체발화의 19.14%가 ‘시도’로 나타났고, 일반아동은 25.29%가 ‘시도’로 나타나 일반아동이 ‘시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적절한 시도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t = 2.10, p < .05$)가 있었으며, 부적절한

시도에서는 정인지체아동과 일반아동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인지체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말을 주고받을 때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정인지체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적절한 시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인지체아동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대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일반아동에 비해 적고 연구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대화상황에 맞지 않게 발화를 시도하는 부적절한 시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장난감 놀이를 할때, 장난감을 들고, “이게 뭐야” 라고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난감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자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시도이다.

나. 반응

정인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이 전체 말주고받기에서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반응’을 적절한 반응과 부적절한 반응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두 집단의 ‘반응’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결과는 <표 - 2>와 같다.

<표 - 2> 반응 비율에 대한 t 검정결과

구 분	정인지체아동		일반아동		t
	M(%)	SD(%)	M(%)	SD(%)	
적절한 반응	43.43	8.96	49.14	7.44	1.55
부적절한 반응	26.14	5.26	16.86	7.28	3.27*
합 계	69.57	6.21	66.00	9.64	.99

* $p < .05$

정인지체아동은 전체발화의 69.57%가 ‘반응’으로 나타났고, 일반아동은 66.00%가 ‘반응’으로 나타나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적절한 반응에서 일반아동의 적절한 반응 비율이 정인지체아동과 비교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며, 부적절한 반응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t = 3.27, p < .05$)가 있었다.

정인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은 부적절한 반응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정인지체아동이 대화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적절히 반응을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반응을 하거나 의미 전달이 어려운 불완전한 말을 많이 사용하며, 반응을 하는 대신 비언어적인

제스처어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병원 놀이를 할 때, 상대방이 주사기를 들고 “주사 한 대 맞을까요” 라고 하였을 때, “싫어 안맞을래” 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연구자가 “뭘 먹을까” 라고 하였을 때, “근데요, 할머니가 요 옷사줬어요” 라고 응답하는 것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이다.

2. 발화정정과 정정요구

가. 발화정정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이 전체 말주고받기에서 ‘발화정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두 집단 모두 ‘발화정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발화정정은 자신의 발화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 상대방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말을 수정하는 능력인데, 단순한 ‘시도’나 ‘반응’보다 고차원적인 언어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말주고받기의 규칙을 습득하고 대화개시 및 유지가 가능한 연령이 4, 5세 아동이라는 이승복(1994), Berk(1994), Ervin-Tripp(1979), Garvey(1975)들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는 대상아동의 언어연령이 4세 초반인 관계로 말주고받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나. 정정요구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이 전체 말주고받기에서 ‘정정요구’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정정요구’를 적절한 정정요구와 부적절한 정정요구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두 집단의 ‘정정요구’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결과는 <표 - 3>과 같다.

<표 - 3> 정정요구 비율에 대한 t 검정결과

구 분	정신지체아동		일반아동		t
	M(%)	SD(%)	M(%)	SD(%)	
적절한 정정요구	.43	1.36	.00	.00	1.00
부적절한 정정요구	.43	1.36	.00	.00	1.00
합 계	.86	2.17	.00	.00	.00

정신지체아동은 전체발화의 0.86%가 ‘정정요구’로 나타났고, 일반아동은 0%가 ‘정정요구’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적절한 정정요구와 부적절한 정정요구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상대방의 발화내용을 듣지 못하였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정정요구’도 ‘발화정정’과 같이 본 연구는 대상아동의 언어연령이 4세 초반인 관계로 말주고받기가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예) 1) 연구자: 이건 물 끓이는 주전자야.
 2) 아동: 뭐라구요?
 3) 연구자: 주전자라구.
 4) 아동: 자전거라구요?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2)의 “뭐라구요?”는 1)에 대한 적절한 정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나, 4)의 “자전거라구요?”는 부적절한 정정요구라고 볼 수 있다.

3. 방해 및 중복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이 전체 말주고받기에서 ‘방해/중복’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방해/중복’을 문장초 방해/중복과 문장내 방해/중복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두 집단의 ‘방해/중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정결과는 <표 - 4>와 같다.

<표 - 4> 방해/중복 비율에 대한 *t*검정결과

구 분	정신지체아동		일반아동		<i>t</i>
	M(%)	SD(%)	M(%)	SD(%)	
문장초 방해/중복	1.29	1.25	1.29	.81	.00
문장내 방해/중복	2.86	2.43	2.71	.81	.18
합 계	4.14	2.56	4.00	.90	.17

정신지체아동은 전체발화의 4.14%가 ‘방해/중복’으로 나타났고, 일반아동은 4.00%가 ‘방해/중복’으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문장초 방해/중복과 문장내 방해/중복도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호진·김영태(2001)의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말차레연구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문장초 중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문장내 중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결과와는 다르나, 이는 대상아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예와 같이 아동들은 대화 상대방과 거의 동시에 말을 하여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거나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말을 시작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의 밑줄은 중복되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예1) 연구자: (약병을 내밀며) 자, 여기 약병도 있다.

아동: (반사경을 들고) 이거 뭐예요.

예2) 아동: (구강반사경을 들고 불며) 뉘야야 돼.

연구자: 뉘아서 어떻게 해야 돼?

아동: 이거 뉘아서....

4. 인접쌍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이 전체 말주고받기에서 ‘인접쌍’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인접쌍’을 적절한 인접쌍과 부적절한 인접쌍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두 집단의 ‘인접쌍’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결과는 <표 - 5>와 같다.

<표 - 5> 인접쌍 비율에 대한 *t* 검정결과

구 분	정신지체아동		일반아동		<i>t</i>
	M(%)	SD(%)	M(%)	SD(%)	
적절한 인접쌍	40.43	9.38	46.43	9.02	1.46
부적절한 인접쌍	29.14	5.09	19.57	7.71	3.28*
합 계	69.57	6.21	66.00	9.64	.99

**p* < .05

정신지체아동은 전체발화의 69.57%가 ‘인접쌍’으로 나타났고, 일반아동은 66.00%가 ‘인접쌍’으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일반아동의 적절한 ‘인접쌍’ 비율이 일반아동과 비교해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며, 부적절한 인접쌍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t = 3.28, p < .05$)가 있었다.

‘인접쌍’은 선행발화의 내용과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선행발화의 내용에 정보를 추가하는 발화로, 부적절한 인접쌍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 예는 적절한 인접쌍과 부적절한 인접쌍을 나타내고 있다. 3)은 2)에 대해 적절한 인접쌍이라고 볼 수 있으나, 5)는 4)에 대해 부적절한 인접쌍임을 알 수 있다.

- 예) 1) 아동: 방에 침대가 있어요.
- 2) 연구자: 그리구...
- 3) 아동: 부엌도 있어요.
- 4) 연구자: 부엌에서 뭘하지?
- 5) 아동: 칼도 있어요.

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는 말주고받기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비교를 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의 말주고받기의 하위영역에 대한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적절한 시도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적절한 시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반응’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적절한 반응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부적절한 반응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발화정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정요구’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적절한 정정요구와 부적절한 정정요구에서도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셋째, ‘방해/중복’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문장초 방해/중복과 문장내 방해/중복

도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넷째, ‘인접쌍’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적절한 인접쌍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부적절한 인접쌍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논의

본 연구 결과 언어연령을 동일하게 일치시킨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은 말주고받기의 하위영역의 사용 비율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영역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양적인 차이는 있으나 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아동의 정신연령에 따른 언어를 구사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정신지체아동은 같은 정신연령의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더 낮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한다(Owens, 2002).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말을 주고받을 때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정신지체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적절한 ‘시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정신지체아동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대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가 일반아동에 비해 적고 연구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은 부적절한 반응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정신지체아동이 대화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적절히 반응을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반응을 하거나 의미 전달이 어려운 불완전한 말을 많이 사용하며, 반응을 하는 대신 비언어적인 제스처어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다운증후군아동은 발음상의 문제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의 질문에 정신지체아동은 한 단어 수준이나 간단한 동작으로 주로 반응을 하였고 문장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는 적었다. 이는 정신지체아동의 언어능력의 결함과 실패의 누적으로 인한 소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또한 정신지체아동이 소극적인 대화형태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Beveridge (1989), Kamhi & Masterson(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인접쌍’은 선행발화의 내용과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선행발화의 내용에 정보를 추가하는 발화로, 부적절한 인접쌍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반응’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두 집단 모두 ‘발화정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발화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 상대방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말을 수정하는 능력은 단순한 ‘시도’나 ‘반응’보다 고차원적인 언어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말주고받기

의 규칙을 습득하고 대화개시 및 유지가 가능한 연령이 4, 5세 아동이라는 이승복(1994), Berk(1994), Ervin-Tripp(1979), Garvey(1975)들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는 대상아동의 언어연령이 4세 초반이기 때문에 말주고받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방해/중복’은 전체 말주고받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아동이 말을 주고받을 때 대부분 한 사람씩 교대로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Sacks, Schegloff & Jefferson(1974)의 말주고받기의 공통적인 사항과 일치하며, 아동들이 대화에서 대부분 한 사람씩 순서에 따라 말을 주고받는다고 보고한 Gallagher & Craig(1982), 이효진·김영태(2001)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정신지체아동은 같은 정신연령의 일반아동에 비해 단순한 대화의 시도와 반응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하는데 소극적인 특성은 정신지체 본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동안 누적되어온 의사소통에 대한 실패경험 등 환경적인 영향력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Owen, 2002; Peter, 2000). 또한 낮은 기대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의 의사소통 경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과 연구자간의 대화상황을 수집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아동보다 우수한 의사소통능력을 갖고 있어 순수하게 자연스런 상황에서 아동의 자발적인 발화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정신지체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대화상황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친구나 동료집단간의 대화상황에서의 말주고받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말주고받기의 규칙을 습득하고 대화개시 및 유지가 가능한 연령이 4, 5세 아동이라는 연구 결과와(이승복, 1994; Berk, 1994; Ervin-Tripp, 1979; Garvey, 1975), 정신지체성인은 일반성인과 유사한 말주고받기 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Abbeduto & Rosenberg, 1980)에 비추어 볼 때, 언어연령이 5세 이상이거나 정신지체성인의 말주고받기의 특성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승국·김옥기(1995). 『사회성숙도 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김영태(2000).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이승복(1994). 『어린이를 위한 언어획득과 발달』. 서울: 정민사
- 이승환 · 배소영 · 심현섭 · 김영태 · 김향희 · 신문자 · 한재순 · 김진숙 · 이정학(2001). 의사소통장애와 언어 · 청능치료사. 『의사소통장애개론』. 서울: 하나의학사.
- 이효진 · 김영태(2001).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대화 말차례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6(2), 293-312.
- 전병운(1994). 정신지체아동의 활용능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bbeduto, L. & Rosenberg, S.(1980).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mildly retarded adults. *Applied Psycholinguistics*, 1, 405-426.
- Abbeduto, L. & Hesketh, L. J.(1997). Pragmatic development in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Learning to use language in social interactio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3(4), 323-333.
- Beveridge, M.(1989). Social cognition and the communicative environment of the mentally handicapped. In M. Beveridge, G. Conti-Ramsden & I. Leudar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mentally handicapped children*. London: Chapman & Hall.
- Berk, L. E.(1994). *Child development*(3r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Craig, H. K. & Gallagher, T. M.(1982). Gaze and proximity as turn regulators within three-party and two-party child conversation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5, 65-74.
- Craig, H. K. & Evans, J. N.(1989). Turn exchange characteristics of SLI children's simultaneous and nonsimultaneous speech.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4, 334-347.
- Craig, H. K. & Evans, J. N.(1991). Turn exchange behaviors of children with normally developing language: The influence of gender.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866-878.
- Ervin-Tripp, S.(1979). Children's verbal turn-taking. In E. Ochs & B. Schieffelin (Eds.), *Development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Gallagher, T. & Craig, H.(1982). An investigation of overlap in children's speech.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1, 63-75.
- Garvey, C.(1975). Requests and responses in children's spee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 41-63.
- Kamhi, A. G., Masterson, J. J.(1989). Language and cognition in mentally handicapped: Last rites for the difference-delay controversy. In M. Beveridge, G. Conti-Ramsden & I. Leuder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mentally handicapped children*. London: Chapman & Hall.
- McTear, M. & Conti-Ramsden, G.(1992). *Pragmatic disability in children*. London: Whurr Publishers.
- Owens, R. E.(2002). Mental retardation: Difference and delay. In D. K. Bernstein & E. Tiegerman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in children*. Boston: Allyn & Bacon.
- Peter, D.(2000). Dynamics of discourse: A case study illuminating power relations in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38, 354-362.
- Prutting, C. A. & Kirchner, D. M.(1987). A clinical appraisal of the pragmatic aspects of languag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2, 105-119.
- Sacks, H., Schegloff, E. & Jefferson, G.(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696-735.

ABSTRACT

**An Analysis of Turn-Taking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Yu Mi Choi

(Bukhansan Elementary School)

Byung Un Je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eatures of turn-taking betwee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uld at least structure sentences with two words and exhibit minimum of developmental language-age of three to four years. Ten mentally retarded children were matched with ten normal children. Conversational speech samples between the researcher and each child were collected. Dependent variables included turn-taking, initiation and response, repair and revision, interruption/overlap, and adjacency pair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every dependent variable, except for a number of specifically appropriate situations.

Key Words: turn-taking

▶ 게재 신청일: 2003년 9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03년 11월 17일

▶ 최유미 (제 1 저자): 북한산초등학교 교사, e-mail: sanbi@hanmail.net

▶ 전병운 (교신 저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e-mail: jeonun@kongju.ac.kr